



# 세계 평화통일 가정연합

## 서론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이단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통일교이다. 그만큼 통일교는 우리의 생활 깊숙이 파고들어 있는 것이다. 종교적인 내용을 제외하고서라도 경제적인 부분에도 많이 침투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깊숙이 침투해 있다는 표현이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정작 이렇게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통일교에 대해 아는 것에 대해 물어보면 추상적으로 알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 통일교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번 발표는 통일교가 가지고 있는 이단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나아가서 이러한 조사과정을 통해 밝힌 것들을 성도들에게 알리어 통일교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본론에서는 2년전 팔순을 맞이한 통일교의 교주인 문선명의 살아온 길을 돌아보고 난 뒤, 통일교가 표방하고 있는 이론들을 살펴보고 통일교가 가지고 있는 이단적인 요소들을 기술해 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통일교가 현재 가지고 있는 후계자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간략히 전개해보도록 하겠다.

결론에서는 조사과정을 통해 느낀 것들에 대해서 간략히 밝히고 이단과 관련하여 우리들의 사명에 관하여 생각해 보면서 본 발표문을 맺고자 한다.

## 본론

### 1. 통일교의 역사적 배경과 문선명

통일교가 태동하여 지금까지 유지되어온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통일교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변화, 역사적 배경, 통일교의 확장에 기여한 미국포교에 관한 내용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 1) 통일교의 명칭과 의미

‘통일교’는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 (이하 통일교)의 속칭이다. 이 명칭의 의미는 세계의 모든 사상, 정치, 그리고 종교를 하나의 길로 완전히 통일시킨다는 것이다. 통일교는 세계의 모든 종교를 하나의 기구 밑에 단일화하려는 에큐메니칼운동과 같은 것이며, 나아가 개인의 통일, 가정의 통일, 사회의 통일, 국가와 세계의 통일을 모색하고 있고, 문선명을 통일 세계의 총통으로 삼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통일교는 이를 위해 세계적인 통일교 친척권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세계 통일의 종교적 범신론이며, 혼합주의고, 인본주의이다<sup>1)</sup>. 지난 97년 통일교는 창립 43주년만에 이름을 ‘세계 평화통일 가정연합’으로 바

꾸고 전통과 문화를 중시한 신앙운동에서 가정 중심의 예배를 통한 평화 통일가정 문화운동으로 전화할 것을 주창했다<sup>2)</sup>).

## 2) 통일교의 역사적 배경과 문선명의 혼음의 역사

통일교의 역사적 배경 가운데 중심에 위치한 것은 ‘혼음의 계보’이다. 이는 김백문과의 관계와 그의 결혼생활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문선명은 이스라엘 수도원에서 6개월 동안 공부하여 그의 교리들을 체계화하였는데 이 교리들이 후에 원리강론에서 제시되었다. 후에 문선명이 하늘의 계시를 받아 기록했다는 ‘새 진리’인 원리해설(후에 원리강론으로 변경)은 김백문<sup>3)</sup>의 교리를 뼈대로 하여 기록된 것임을 김백문의 「성신신학」과 「기독교근본원리」를 보면 알 수 있다. 또한 혼음파의 원조인 황국주의 수제자 옥세현과 기숙하면서 황국주의 이론에도 영향을 받았다. 1946년 4월초에 평양으로 간 문선명은 김백문으로부터 배운 원리<sup>4)</sup>를 전파했다. 그는 ‘하나님의 창조이상’, ‘천사장의 횡적 사랑에 의한 아담 하와의 타락 경위’, ‘성모 마리아 세례요한의 사명 담당자들의 책임미완수로 초래된 예수의 십자가 비극’ 등을 주제로 하여 성경을 풀어 나갔는데 여신도들은 가정을 포기할 정도로 심취했다.

1945년 문선명은 26살 때 최선길과 결혼을 했으나 첫번째 구금후에 별거를 하였고 그의 포교활동을 이해할 수 없어서 이혼하였다. 두번째 결혼<sup>5)</sup>은 언더우드의 양녀인 연세대 영문과 1학년이던 김명희양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녀와의 사이에 아들도 하나 있었다<sup>6)</sup>. 그런데 아들을 낳은 시기가 최선길과 이혼하기 전이었다. 그후 최모여인으로부터 아들 하나를 더 낳아 이름을 사무엘이라 지었는데 문교주의 측근이 맡아 기르고 있다. 1960년에 네번째 결혼을 한다. 통일교에 의하면 그의 신부는 복귀원리에 가장 적합한 17세의 고등학생인 한학자였다. 그들의 결혼을 통일교에서는 ‘어린양 잔치’라고 부르며 한학자를 ‘우주의 어머니’, 또는 ‘참 어머니’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난 자녀들에게는 죄가 없다고 한다<sup>7)</sup>. 이렇게 세 여인으로부터 아들 3명을 본 후 현재 처와의 사이에 열 네명의 자녀를 두었다.

통일교가 혼음의 계보라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며, 그들에게 가장 큰 오점을 남긴 사건은 세칭 이대사건이었다. 이대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이대 음대 성악과 강사였던 양윤영이 1954년 4월 문선명을 만나 그를 추종하면서 동료인 이대 기숙사 사감이었던 한총화를 권유하여 통일교에 입교시켰고 한총화에 의해 최원복 교수와 김영운 교수등이 잇달아 입교하여 이대생은 물론 이화여고생까지 정신없이 문선명을 추종하게 되었다. 심지어 이대 영문과 영어시험에 학생 7명이 답안지에 문선명의 교리를 쓸 정도였다<sup>8)</sup>.

1) 박영관, *이단종파비판 I*(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6), pp.28~30.

2) <http://www.khan.co.kr/newsmaker/society/n361c09.htm>

3) 1930년대 초반에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던 광적 신비주의자인 이용도 목사의 영향을 받아 그 신앙과 원리가 변형되어 삼각산 기슭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이스라엘 수도원의 김백문이다.

4) 「기독교 근본원리」의 내용은 ‘창조원리, 타락원리, 복귀원리’ 세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창조원리는 무에서 유로의 창조를, 타락원리에서는 성적인 관계로 인한 타락을, 복귀원리에서는 자신의 노력으로 인한 복귀를 말하고 있다.

5) 본처를 두고 신의 계시라 하여 김중화와 결혼한 것을 두번째로 보기도 한다.

6) 심창섭·김도빈·오영호·박영관, *기독교의 이단들*(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2000), p.202.

7) 성경은 로마서 3:10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문선명의 자녀들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다.

### 3) 통일교와 문선명

문선명은 통일교의 재림주요 메시아이며 교주이다. 문선명은 1920년 1월 6일 태어났다. 그의 가족들은 그가 열 살 되던 해에 기독교로 개종<sup>9)</sup>하여 장로교 교인이 되었다. 16세의 젊은 나이에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한다. 환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나타나 당신께서 이루시지 못한 과업을 수행하라고 명령하셨다. 한다. 예수께서는 오직 문선명만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다. 결국 문선명은 예수의 끈질긴 강요에 못 이겨 그 명령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그는 자신에게 모든 교리를 계시해 준 분은 예수였다고 주장하면서 “예수나 공자처럼 과거에 살았던 어떠한 영웅들이나 성자들이 거룩한 사람이라도 나를 능가하지는 못하였다.” 라고 하였다<sup>10)</sup>. 이는 물론교의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15세 때에 신적 계시를 받았다는 것과 김백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을 보았다는 것과 같다.

그는 이용도파의 예수교회와 북아현동에 있는 오순절 교회의 광적인 학생 신도였고, 자기 나름대로의 성경연구를 시도했었다. 문선명은 10대에 신앙적 격동을 겪고 일본에 건너가 와세다 대학에서 전기학을 전공했다고 하나 졸업생 명단에서 그 이름을 찾을 수는 없다.

1946년 그는 평양에 ‘광해교회’를 세워 색다른 포교를 했었다. 이는 일종의 독립교회로서 기독교회에 대한 도전이었고 반항이었다. 그는 1946~1950년 사이에 북한에서 투옥되는데 자신은 반공산주의적 활동 때문에 두 차례에 걸쳐 투옥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가 간음과 2중 결혼 때문에 투옥되었다고 말하며 그의 반공산주의적 활동은 1962년에 개시되었다고 주장한다<sup>11)</sup>.

1.4후퇴시 부산으로 피난했다. 1950~1954년에 부두 노역자로 일했는데, 이 기간 동안 유희원이란 의대생과 자신이 공동으로 체계화시킨 원리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유희원은 이 신흥 종교의 원리들을 썼으며 공기총을 발명하여 문선명이 부자가 되도록 했다<sup>12)</sup>. 부산에서의 활동은 호구지책을 위한 활동이었고 걸인생활의 비참한 지경에서 헤메이기도 했다. 통일교는 그것을 세례 요한의 광야생활에 비유한다. 이 때 자신의 서글픈 처지를 생각하며 그가 거쳐하고 있던 부산 범넛골 뒷산에 올라가 바위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는데, 그 바위가 후일 유명한 ‘눈물의 바위’가 되었고 그곳은 성지로서 전 세계 통일교 신도들의 순례지가 되었다.

‘용명’을 ‘선명’으로 개명한 것은 혼음파동 이후인 1964년 8월 11일 서울민사지방법원 판결을 통해서이다<sup>13)</sup>. 통일교의 신도들은 그들의 교주가 우리나라에서 태어났고 재림주가 우리나라에 강림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그들의 메카로 부르며 조국이라 하는데 문선명은 그 기대를 벗어나 1973년 조국을 떠났다.

1981년은 중요한 해로 선포되었다. 그 해에 ‘지상 천국’이 시작될 것이며 세계는 문선명을 ‘재림주’로 인정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 지상 천국은 오지 않았다. 문선명은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는 국외자들에 의한 불신앙과 그들을 회개시키지 못한 교회의

8) 탁명환, *기독교이단연구*(서울: 한국종교문제연구소, 1996), pp.126~132.

9) 문선명의 형 용수는 문선명이 15세일 때 정신병으로 사망했고, 둘째 누이도 미쳐버려 그 일가가 기독교에 입교했다.

10) 조쉬 맥도웰·돈 스튜어트, 이호열 역, *이단종파*(서울: 기독교지혜사, 1989), pp.157~158.

11) 박영관, op.cit., pp.34~36.

12) 로날드 엔로드 외, 오희천 옮김, *신흥종교와 이단들*(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4), pp.182~183.

13) 탁명환, op.cit., pp.125~130.

실패로 인해 세계가 아직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밝혔다. 1982년 7월 16일 문선명은 미국에서 탈세 혐의로 18개월 동안 구속되어 25,000달러의 벌금형을 받았으며, 그 때 통일교의 세력이 축소되었다<sup>14)</sup>.

통일교에서는 문선명을 기독교의 궁극적인 문제와 성경의 알 수 없는 의미를 해석하는 자이며, 신의 전 섭리 목적과 인류의 과거, 현재 및 미래와 복음서에 기록되지 아니한 예수님의 생애를 철저히 아는 유일한 신의 사람으로 믿는다. 문선명을 우상화시키고 그를 메시아로 부각시킨 사람은 유효원이다. 그는 문선명을 「원리강론」에서 부각시켰다.

#### 4) 통일교의 미국 포교

오늘의 통일교가 성장한 데는 미국의 포교에 실효 덕분이다. 통일교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이 미국의 통일교 신도들에게 소비되고, 그들에 의해 판매와 보급이 널리 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 최초로 포교를 한 사람은 김영운이다. 그리고 김상철과 대사관 직원이었던 박보회가 미국 포교에 큰 역할을 했다. 통일교의 「희망의 날」 화보의 서문에 보면 신이 미국을 택하시어 1971년 후반기에 문선명을 보내주었고 신은 그의 섭리를 온 세상에 재림주를 통하여 선포하였다고 되어 있다<sup>15)</sup>.

## 2. 통일교와 원리강론

통일교는 「원리강론」을 신이 문선명에게 준 계시의 말씀으로 믿고 있으며, 절대적인 신적 권위를 부여하고 있다. 통일교에서는 성경보다도 문선명의 문서들과 가르침이 더욱 권위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들은 「원리강론」을 완성된 언약으로 믿고 있다. 그것이 지금까지 한 번도 계시된 적이 없는 이 시대의 진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sup>16)</sup>. 성경중에 800여구절을 인용하였다. 통일교에서는 성서를 구약, 신약, 성약으로 구분하는데 성약서가 곧 「원리강론」이다<sup>17)</sup>. 이러한 「원리강론」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진다. 하나는 통일교 신도들에게 특수한 신앙 노선을 주입시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현재의 모든 형태의 신약성서의 신학을 붕괴시키는 것이다.

### 1) 새 계시 - 원리강론

「원리강론」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이론은 세 개의 영역,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 그리고 재림주의 세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아담과 이브는 죄에 빠진 최초의 피조물들이었다. 두 번째 아담은 유대인들의 불신앙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였다. 재림주는 지상에 하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와야 하는 메시아이다. 이들 세 아담들은 창조의 원초적인 목표들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한다<sup>18)</sup>.

그들은 「원리강론」을 나무에 비유하여 설명한다. 씨앗은 유대교의 경전이요, 나무는 기독교의 성경이요, 열매는 통일교의 「원리강론」이라는 것이다. 통일교는 성경을 진리 자체가 아니고, 진리를 가르쳐 주는 하나의 교과서로 보며, 이것은 시대의 흐름과 더불어 변천

14) 로날드 엔로드 외, op.cit., pp.185~186.

15) 박영관, op.cit., pp.41~47.

16) 조쉬 맥도웰 · 돈 스튜어트, op.cit., p.159.

17) 탁명환, op.cit., p.132.

18) 로날드 엔로드외, op.cit., pp.186~187.

하여 각 사람에게 적용되었던 원리이므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나 가르쳐 주는 방법은 주위 환경과 시대성에 알맞게 변해야 된다고 한다. 이는 성경의 정경성을 부인하는 태도이다. 그들은 구약성경은 타락한 인간에게 소생기까지 재창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말씀이요, 신약성경은 장성기까지 재창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말씀이요, 이제 완성기에는 말씀의 약속을 성취할 「성약서」라는 것이다. 그들은 성경의 말씀을 상대적으로 받아들이며, 성경의 문자는 진리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지 진리 자체는 아니라고 한다. 신약성경은 지금부터 2천년 전 심령과 지능의 정도가 대단히 저급하였을 때의 인간들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 주셨던 하나의 과정적인 교과서였다고 한다<sup>19)</sup>. 따라서 오늘날의 지성인들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보다 고차원적인 내용과 과학적인 표현 방법에 의한 것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그들은 ‘새 진리’라고 부른다. 성경은 새 진리의 인용구로 사용할 뿐이며, 그들의 신앙과 생활에는 「원리강론」을 지침으로 삼는다.

## 2) 원리강론의 창조원리

「원리강론」의 창조원리는 인생과 우주에 관한 근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것을 창조한 신의 존재를 규명하는 데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원리강론」에 따르면 신을 피조세계에서 찾고 있다. 그들은 피조세계는 2성성상의 상대적 관계로 되었다고 한다. 창세기 1:27을 인용하여 신은 양성과 음성의 2성성상의 중화적 존재자라고 한다<sup>20)</sup>. 피조세계의 모든 피조물은 이성성상의 상대적 관계를 전제로 하여 창조되었으므로 주체와 대상이 상대적 관계를 맺고 잘 주고받는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수수작용이라고 하며, 수수작용을 일으키는 원인의 힘이 있는데, 이것을 만유원력이라고 하며,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영원, 자존하는 절대자로 계시하기 위한 근본의 힘이라는 것이다. 정분합 작용에 의하면 하나님과 분리된 주체와 대상, 그리고 그 합성체가 각 위의 목적을 완성하면 변할 수 없는 힘의 터전이 이룩되는데, 이를 4위기대<sup>21)</sup>라 한다. 이 4위기대는 존재 가운데 하나님이 운행하실 수 있는 기본 터전이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한 선의 근본적인 바탕이 된다고 한다. 이성성상의 수수작용을 그들은 남녀의 성관계로 해석한다<sup>22)</sup>. 그러나 하나님은 상대성을 가진 존재자가 아니며(행14:1,15), 사람의 모양이나 물질적인 존재자도 아니다(출3:14).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영의 세계에는 성관계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 주신다(마22:30).

통일교는 신의 창조목적은 신이 영광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 창조한 것으로 보며, 나아가 신은 남성적 자신과 여성적 피조세계, 그리고 합성체인 문선명을 중심으로 한 창조목적을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세계를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창조하신 것이다(사60:21, 겔36:21, 롬9:17).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결핍을 채우시기 위해 창조하지 않으셨다.

「원리강론」의 창조론은 고대 헬라 철학의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과 질료의 상호관계를 말하는 창조론으로서 그들은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신을 말한다. 결국 「원리강론」의 창조론은 범신론이며, 섹스를 모티브로 한 신을 말하고, 동양 철학의 역학을 중심한 상대적 신

19)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정확무오한 말씀이며, 신앙과 생활의 규범이며, 성경 외에는 외경일지라도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며, 성경의 일부가 될 수 없다. 성경의 권위는 개인이나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 자체에 있으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벧후 1:21).

20) 박영관, op.cit., pp.51~56.

21) ‘하나님, 마음, 몸, 사람’을 사위기대라 한다.

22) 심창섭·김도빈·오영호·박영관, op.cit., pp.208~209.

과 창조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 3) 원리강론의 타락론

「원리강론」은 창세기 3:6을 타락의 성경적 근거로 든다. 타락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데 있다고 하나 선악과를 문자적인 과실로 보지 않으며 상징적인 것으로 본다<sup>23)</sup>.

「원리강론」에서 말하는 타락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루시퍼가 하와의 미모를 보고 욕심을 품었다. 루시퍼는 시기와 욕정으로 하와와 불륜의 관계를 맺고, 그 성적 관계로 말미암아 루시퍼가 타락했으며, 사람도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었다. 하와는 하나님과 자기의 위치를 회복하고자 아담과도 성관계를 맺었다. 아담은 아직 영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였으므로 이로 인해 육체적 타락을 야기시켰다. 그러므로 타락에는 영적타락과 육체적 타락이 있다. 타락 후 그들이 하체를 가린 것은 타락에 성이 관계되었음을 말해 준다. 하와와 사탄의 불륜으로 인해 가인이 탄생했는데 이는 인간과 사탄과의 관계를 상징하며 정치적인 형태는 공산주의에서 그 절정에 이른다. 두 번째 정사로 태어난 아벨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상징하며 정치적인 형태는 민주주의에서 절정에 이른다. 타락 이후 영적·육체적 구원을 통해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sup>24)</sup>.

그러나 이것은 우화적 설명에 지나지 않으며, 사탄과 하와가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과 영적 타락과 육체적 타락에 관한 것은 성서적 근거가 없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지식은 얻었지만, 순결을 잃었고, 마음이 열렸으나 윤리적인 죄의식을 갖게 되었으며, 양심은 밝아졌으나 죄책을 경험하게 되었으므로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 몸을 가린 것이다(딤후2:14). 통일교에서 말하는 천사의 범죄가 간음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근거인 유다서 6~7의 말씀은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잠입한 거짓 스승을 의미하는 것이다.

통일교는 인류에게서 타락한 천사의 더러운 피를 가려내야만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한다. 하나님은 창조한 인류를 놓고 사탄과 빼앗기 싸움을 하여 에덴동산의 인류타락 사건으로 인해 결국 인류를 사탄에게 빼앗겨 버렸고, 사탄의 혈통을 받아 아담과 하와 사이에 태어난 인류는 자손 대대로 사탄의 자식들이 되어 원죄가 있는 악인들이며 이런 악인들로 구성된 이 세상은 사탄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타락의 근본원리이다. 여기에서 생기는 것이 ‘피가름의 원리’이다. 타락한 피를 혈액순환으로써 제거해야 하므로, 먼저 죄 없는 피를 주입시켜야 하는데 이것은 천사와 하와와의 혈연관계에 대한 방도로써 해야 한다고 한다. 결국 문선명이 사탄에게 빼앗겨 버린 인류를 위해 그가 16세 이전에 억만 사탄과 싸워 승리를 거뒀고 문선명이 되찾은 인류를 하나님께 돌려 들렸다는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1968년 1월 1일을 하나님의 날로 정하고 매년 성대한 잔치를 벌이고 있다<sup>25)</sup>. 그러나 인간의 타락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불신앙하여 선악과를 따먹은데 있다. 그 결과로 타락하여 죄의 노예로 전락한 것이다. 그 죄는 인류의 연대성 때문에 모든 후손들에게도 전달된 것이다.

「원리강론」의 타락론은 생명나무를 아담이라 하며 그가 후 아담으로서 재림주라고 하면서 생명나무는 문선명이라는 것이다. 반면에 선악과는 하와를 의미한다. 후에 하와를 선택 자녀를 낳은 참 어머니라고 하는데 이는 한학자를 말한다. 그들은 문선명과 한학자를 통해

23) 박영관, op.cit., pp.59~60.

24) 로날드 엔로드외, op.cit., pp.188~189.

25) 탁명환, op.cit., p.135.

생명을 받고 육적 타락의 구원을 얻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성경의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것이고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시조에게 자율적으로 선악을 선택케 하는 자유의지에 대한 시험을 하신 것이다.

#### 4) 원리강론의 기독교론

여기에서는 문선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놓고 전개하고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창조이상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창조이성을 완성한 한 남성이 와야 했는데 그가 예수님이다. 선의 자녀를 낳기 위해 참 아버지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다<sup>26)</sup>. 하나님은 메시아의 오심을 위해 부처와 공자를 불러 아시아를 준비시켰으며, 소크라테스를 불러 헬라 세계를 준비시켰다. 모든 종교들과 문화들이 하나가 되어 예수를 받아들여야 했으나 하나님의 뜻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박혀 죽음으로써 실패하였다. 에덴동산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낸 두번째 아담으로 세상에 보내셨고 둘째 하와가 마리아이다. 예수께서 첫아담의 죄를 씻기 위해선 둘째 하와인 마리아를 품어야 했다고 말하면서 예수와 마리아를 부부지간이라고 한다. 그러나 마리아가 반대하였고 이에 대하여 예수께서 “여인이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실망을 드러내고 막달라 마리아를 사랑하게 되며, 이를 질투한 가롯유다가 예수를 팔았다는 것이다<sup>27)</sup>.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된 이유는 세례 요한 때문인데, 그는 예수께서 오시도록 하기 위해 길을 평탄케 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지만 믿음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으며 결국 예수를 죽게 했다<sup>28)</sup>.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면 그는 지상에서 완전한 배우자를 발견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가정을 세웠을 것이며 육체적 구원과 영적 구원을 모두 이루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가 실패했기 때문에 육적 타락을 구원해 주실 재림의 주님이 오셔야만 하는데 초림때의 예수님처럼 육신을 입고 와야만 한다.

그는 어린양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이자 신랑이라고 하면서 그를 문선명 자신이라 한다. 예수님을 구속사역의 실패자로 보면서 참 아버지와 참 어머니의 혈연적인 관계로 인한 선의 자녀를 낳아서 구원의 성취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성서에서 하나님께서 복수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천사들의 우두머리로서 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sup>29)</sup>.

이것은 예수님을 피조물로 보는 것이요,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것이다. 문선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비성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문선명은 “우리는 예수와 동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능가할 수도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역을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셨으며 그 사역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에 족하다고 증거하고 있다(히10:14)<sup>30)</sup>.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써만 유효한 것이며 속죄의 본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 희생 제물이요 화목제와 속죄제이다.

#### 5) 원리강론의 복귀원리

이 이론은 타락된 인간으로 하여금 창조목적을 완성케 하기 위하여 그들을 창조 본연의

26) 박영관, op.cit., pp.60~65.

27) 탁명환, op.cit., pp.138~139.

28) 조쉬 맥도웰 · 돈 스튜어트, op.cit., pp.161~162.

29) 로날드 엔로드외, op.cit., pp.189~190.

30) 조쉬 맥도웰 · 돈 스튜어트, op.cit., pp.162~163.



인간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복귀원리는 탕감을 통한 복귀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혈통적 탕감과 수리적 탕감<sup>31)</sup>이 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 2천년이 된 기간을 재림주의 탕감조건시대라고 한다. 재림주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할 최후의 탕감 조건을 세우는 자이며 복귀원리를 성취할 자라고 한다<sup>32)</sup>. 탕감조건을 세우는 방법은 반대의 경로에 해당하는 탕감조건을 세워야만 하며, 죄인 스스로가 책임분담으로써 그에 필요한 탕감조건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한다<sup>33)</sup>.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을 제한하고 부인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대리적 속죄를 말한다(레1:4;4:20;5:10;막10:45;롬8:3;갈1:4;벧전:3:18).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속의 인격성에 있는 것이다.

통일교에서는 신을 수리적 존재로 보며 모든 존재물이 4위기대를 조성하여 존재하고 4위기대는 그 각 위가 각각 성장기간의 3단계를 거쳐 도합 12수의 수리적인 성장기간을 완성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인간 시조는 12수에 의한 믿음의 기대를 세워 가지고 12대상 목적을 완성함으로써 12수 완성 실체가 되어야 했던 것인데, 그들은 타락함으로 12수의 탕감 복귀를 해야 한다고 한다. 그것은 노아가 방주를 짓는 120년, 모세를 중심한 가나안 복귀 120년, 아브라함이 소명된 후 야곱이 에서에게 장자의 기업을 탈취하는 기간인 120년, 또 이 기간을 탕감복귀하기 위한 구약시대의 통일왕국시대 120년, 신약시대의 기독교 왕국시대 120년 등은 모두 12수를 복귀하기 위한 탕감기간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4수의 탕감복귀도 말한다. 하나님은 아담 이후 10대만에 노아를 찾아 세웠고 아담으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의 40수는 복귀하기 위한 탕감기간이라 했다. 모세의 금식 40일, 가나안 정탐기간의 40일, 예수님의 금식 40일과 부활기간 40일 등이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기 위한 4수복귀의 탕감기간이라고 한다. 이처럼 원리강론의 복귀원리는 4수, 12수, 21수, 그리고 40수의 수리적인 탕감기간을 말한다. 그러나 성경의 숫자는 구속적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단순한 문자적 의미가 있고 신령적인 비유의 함축적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뿐이다. 「원리강론」의 복귀원리에 있어서 구원섭리의 95%가 신의 책임이고, 나머지 5%는 인간의 자기 분담에 있다고 한다. 예수님의 초림 때 5%를 소유한 유대인들이 반대함으로 신의 95%는 패배를 당했다고 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 행위로 말미암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초대교회에 있어 유대주의자들의 입장이요(행15:1), 인간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인본주의적 신앙태도인 것이다<sup>34)</sup>.

사탄이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의 육체적인 몸을 점령하였고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탄의 승리였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의 죄를 대신 하여 죽으시기 위함이었다고 성경은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다(마20:28;고후5:19)<sup>35)</sup>.

## 6) 원리강론의 재림론

「원리강론」의 재림론은 예수님의 재림 시기를 현세라고 한다. 그들은 예수님이 재림하

31) 수리적 탕감의 예로 한국으로의 재림을 정당화하기 위해 한궁이 메시야를 맞을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원리적으로 가나안 복귀를 위한 40일의 사탄분립의 민족적 기대를 세워야 하는데 그 기대가 바로 일본제국에 속박되어 박해를 당한 40년이라고 주장한다.

32) 박영관, op.cit., pp.66~68.

33) 이대복, 통일교 원리비판과 문선명 그 실상 허상(서울: 국제통일교 대책문제연구소, 1987), pp.105~106.

34) 박영관, op.cit., pp.69~72.

35) 조쉬 맥도웰 · 돈 스튜어트, op.cit., p.163.

할 때를 말세라 하며, 말세는 바로 현세라는 것이다. 말세는 지상지옥이 지상천국으로 바뀌어지는 때를 말하는데 이미 재림주가 재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때가 이르면 재림하실 것이라고 했고(마16:27;29:30;막13:26~27), 재림주는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도적 같이 오신다(마24:37~44;벧후3:10;계3:3)고 했고, 그 시는 아무도 모르며 아버지만 아신다(마24:36;막13:32)고 했다. 그러므로 재림의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였다고 단정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며, 이단설이 되는 것이다.

「원리강론」에서는 인간을 영적으로 완성시킨다는 창조의 목적은 지상에서의 육체적 삶을 통해 성취되는 과정을 필요로 함이 강조되어 있고, 재림주가 초림 때와 마찬가지로 지상에서 육신을 입고 탄생한다고 한다. 예수는 아브라함부터 2,000년 후에 왔으며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메시아의 첫 번째 오심을 준비하신 것처럼, 재림주는 예수로부터 2,000년 후에 올 것이며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재림주를 준비해 오셨다고 나와있다<sup>36)</sup>. 그들은 구름을 타고 오신다(계1:7)는 해석을 비유적으로 하여 구름이란 타락한 인간이 중생하여 그 마음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항상 있는 독실한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생한 성도들의 무리 가운데서 제 2이스라엘인 기독교 신도들의 인도자로 나타나신다는 것을 뜻한다고 한다. 그러나 계시록1:7의 구름은 자연의 구름이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도 구름이 그를 가리운 것처럼(행1:9) 다시 오실 때에도 그와 같은 모양으로 오실 것이라 하였다(행1:10). 통일교의 재림 방법은 그들의 교주 문선명을 어떻게 해서든지 재림주로 합리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재림론은 문선명을 중심한 재림이요,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양식이 아니다. 재림주의 재림은 특정한 지역이나, 장소, 국가등에 한정된 위치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살고 있는 곳에 오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나라에 오신다<sup>37)</sup>. 성경은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하여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마2:1,2;24:30).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누구나 볼 수 있는 하늘로부터 인간의 몸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행1:11, 계1:7). 그러므로 메시아가 육체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다시 육체로 태어날 것이라고 말하는 문선명의 교리는 완전히 비성경적인 것이며 다른 메시아는 결코 필요치 않다(행4:12)<sup>38)</sup>.

## 7) 원리강론의 부활론

눅9:60을 인용하여 죽은시체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으로 인해 죄악세계로 이루어진 사탄 주관권 내에서 선의 세계인 하나님 주관권 내로 죄를 벗고 구원되어 나아가는 과정적 현상을 부활이라고 한다. 부활은 육체의 변화는 없고 심령의 변화만 가져 온다. 육신의 죽은 시체 부활을 부정하면서, 예수의 부활은 영인체가 부활하신 것이요, 육체의 부활은 아니라는 것이다. 부활은 인간에게 외형적으로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며 단지 내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부활이다.

지상인의 부활은 인간들이 재림주님을 믿고 모심으로 말미암아 영육이 완전 부활되어 지상 천국에서 생활하던 완성된 인간들이 육신을 벗고 천상 천국으로 가서 살게되는 것을 말한다. 천국은 지상 천국이 건설되어 완전히 선한 인간들이 땅위에서 천국생활을 하다가 노쇠하여 육신을 벗고 영계에 가면 자동적으로 천상 천국 생활을 하게 되므로 천상 천국이 된다고 한다. 여기에서 낙원이란 개념이 나오는데 이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대기소와 같은

36) 로날드 엔로드 외, op.cit., pp.190~191.

37) 박영관, op.cit., pp.73~74.

38) 조쉬 맥도웰 · 돈 스튜어트, op.cit., p.164.

곳이다. 재림하시는 주님께 의해 완성된 부활의 섭리시대가 되는데 이 때 재림주님을 모시는 곳이 지상 천국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재림주가 오기전까지는 낙원에서 죽은 영들이 대기하고 있게 된다는 것이 「원리강론」의 부활론이다<sup>39)</sup>.

### 3. 통일교의 활동

여기서는 통일교의 자체 조직과 그 운영에 관한 것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들이 전도하는 과정과 그들의 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특히 통일교의 큰 특징으로 여겨지고 있는 합동결혼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통일교의 조직과 행사

통일교는 1954년 5월 1일에 창립하여 1963년 5월 31일 정부로부터 사회단체 등록을 법적으로 필하였다. 통일교의 조직은 중앙집권체로서 교주는 문선명이고 한국의 초대 협회장은 유효원, 2대는 김영휘, 3대는 황환채, 재단 이사장은 김원필이며, 80년대 초중반에는 이재석 목사가 협회장이었다. 통일교의 제도는 선거제가 아니고 임명제이며 군대식이다. 통일교의 조직은 재단법인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의 종교조직과 재단법인 국제승공연합이라는 반공을 가장한 조직이 있으며 이외에도 수십개의 문어발식 조직이 있고, 최고 사령탑은 문선명이다<sup>40)</sup>. 1970년에 한국종교협의회에 가입하였고, 교회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등으로 기존 한국교회 조직처럼 기구가 조직되어 있고, 기성교회와 같이 십일조 헌금과 각종의 헌금이 있다<sup>41)</sup>.

통일교의 활동은 다양하다. 수련회는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한글 정도만을 읽을 줄 아는 통일교의 추종자들이 1년에 두 차례씩 수련회를 갖는다. 회당수직은 교주가 살고 있는 서울의 본부를 매일밤 지키는 것을 말하는데, 사탄 주관하의 밤 시간까지도 정복하고, 사탄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문선명이 도미하면서 회당수직의 존재는 애매하게 되었다. 통일교 행사중에 최대의 매력은 합동 결혼식이다. 그 외 많은 축하행사가 있다.

뿐만 아니라 통일교는 다양한 부설기관과 문서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sup>42)</sup>.

#### 2) 통일교의 전도

통일교 신도들 중 대다수가 20대 젊은이들로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은 미소이다. 그것이 사람들을 그들의 운동에 끌어들이는 열쇠이다. 그들의 최초의 목표는 그들의 저녁 초대에 응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그들의 통상적인 방법은 모든 종족과 모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사랑과 우애로 통일시키기 위해 운동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두번째 목표는 이름과 전화 번호를 알아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수회에 참가하도록 권한다. 연수회에 참석하면 문선명의 신도들이 서로를 ‘가족’으로 생각함을 알게된다. 처음 온 사람은 ‘영적인 어린이’로 통한다. 혼자 있도록 방치되지 않으며 반대성을 가진 사람이 배정되어 돌봐 준다. 잡담할 여유가 거의 주어지지 않고 창의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맹종

39) 이대복, op.cit., pp.74~83.

40) 탁명환, op.cit., p.148.

41) 심창섭·김도빈·오영호·박영관, op.cit., p.204.

42) 박영관, op.cit., pp.75~78.

만이 있게 된다. 연수회동안 무의식적으로 복종 행위를 행하게 되고 연속되는 강의에 몰입하게 되며 그 때 가입하도록 요청된다.

가입 후에는 2주일간의 적응 기간 뒤 모든 소유를 바치도록 요구 당한다. 문선명을 아버지라고 말하게 되고 연수회의 시간 계획보다 더 엄격한 시간 통제를 받는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원리강론을 연구하며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판매 행위를 한다.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속이듯이 당신도 사탄의 자녀들을 속이는 것은 정당한 일로 받아들여진다. 이른 ‘하늘의 유혹’이라 부른다.

가정에서의 일상 생활은 각각의 사람들을 위한 완전의 상태로 이끌고 그 운동의 재정적 원조를 마련하며 개종자들을 얻기 위하여 계획된 철저하게 규정된 훈련 과정이다. 완전하게 되기 위해 문선명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 축복을 받으려면 세 명의 ‘영적인 자녀들’을 전도해야 한다. 이 일을 이루고 나면 배우자와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결혼은 완전한 구원을 위해 필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전도할 대상에게 접근하는 것을 ‘침투’라 하며 그 일에 최선을 다한다<sup>43)</sup>.

### 3) 통일교의 예배의식과 생활

통일교의 예배의식은 그 규범을 원리강론에 두고 있다. 매주일 오전과 오후 집회를 하며 수요일과 금요일에도 모임을 갖는다. 순서는 묵도, 성가, 기도, 강론, 헌금, 주기도 순이다. 그들을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리며 전부 동쪽을 향하여 문선명의 사진을 바라보는 자세를 취한다. 그들의 예배의식은 불교와 유교, 기독교의 형식들을 혼합한 것이다. 기도시에는 참 아버지, 재림주, 문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강론은 「원리강론」강해이며, 성경은 단순한 인용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의 생활 양식은 까다롭다. 통일교의 회원이 되기 전에 반드시 갖추어야 할 조건은 원리강론을 세 번 이상 독파하고, 7일간 단식하며, 40일간 개척 포교를 하고, 3인 이상을 통일교에 가입시키며, 탕감금을 내야 한다. 재림주의 축복을 받을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개인의 재산, 생명, 전 삶을 통일교에 헌납하고 식구생활을 한 자로 3년 이상의 통일교 생활을 하고 탕감복귀의 조건을 거쳐야 하며, 속상금을 내고 통일교에 공로를 세운 자이어야 한다. 통일교는 원칙적으로 가정을 중심으로 피라밋식 가족생활을 시도한다. 그들끼리는 ‘식구’라 부르며 통일교 센터에서 합숙생활을 한다<sup>44)</sup>.

통일교의 예배의식과 생활은 교주 문선명을 중심한 예배며 생활로 문선명을 개인 숭배하며 우상화하는 것이다. 통일교의 연중행사는 월평균 6회에 이르는 53회 행사를 치르고 있다. 이 행사는 문선명이 구속되거나 출감할 날부터 자녀의 결혼식, 생일, 사망일도 모두 기념일로 제정하여 존경, 숭배, 충성심을 보이도록 하고 있다<sup>45)</sup>.

### 4) 통일교의 합동결혼식

통일교의 합동결혼식은 그들의 원리적 의의를 갖고 있다. 이 예식의 의의는 ‘국경과 종족을 초월해서 사랑으로 뭉쳐지는 원초적인 결혼은 육체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출발이며 끝이라는 원리’에 따른 것이다. 에덴동산에서 실패한 가정을 복귀시키는 것이 합동결혼식

43) 로날드 엔로드 외, op.cit., pp.199~203.

44) 박영관, op.cit., pp.78~80.

45) 심창섭 · 김도빈 · 오영호 · 박영관, op.cit., p.206.

이며, 이를 통해 이루어진 가정을 ‘축복가정’이라고 한다. 결혼은 남자는 23세, 여자는 21세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는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미완성기에 교합하였기 때문에 불륜한 관계로 전락되었다는 뜻에서이나 문선명의 자녀들이 이전에 결혼을 하면서 이 기준은 무너지고 말았다<sup>46)</sup>.

합동 결혼식은 문선명과 간부들의 주선으로 먼저 사진으로 상대를 선택하고 다음은 혼기에 있는 남녀 젊은이들에게 교제의 기회를 15일 제공한다. 가장 중요한 식순은 왕관을 쓴 문선명과 한학자가 신랑과 신부가 입장할 때에 입구의 양쪽에 서서 그들의 머리에 물을 뿌리는 것과 마지막의 축도이다. 이것은 그들의 원죄가 씻어지고, 그 후부터 그들은 통일교의 선의 자녀를 낳고, 대가족을 이룩하며, 통일세계를 형성한다고 한다. 통일교에는 합동결혼식 외에 다른 성례전은 없다. 7단계의 혼례만 있다. 그것은 약혼축도, 성주식, 결혼식, 탕감봉행사<sup>47)</sup>, 40일 성별기간, 중생식, 7년노정이다. 그들의 결혼식은 섹스를 중심으로한 속죄행위이다.

## 5) 통일교의 통일사상

통일교의 2대 산맥은 「원리강론」과 「통일사상」이다. 전자는 유효원이 초안했고 후자는 이상현이 쓴 것이다. 통일사상은 동양철학의 역학사상에 원리강론의 주제를 혼합시킨 사상이다. 통일사상은 히브리즘적인 신앙과 헬레니즘적인 철학을 통합한 일종의 신인주의이다. 논리적인 기본 논법은 헤겔의 변증법적인 정반합을 따르고 있다. 모든 종교의 교리들을 ‘정’으로 보며, 재래의 철학사상을 ‘반’으로 보고, 통일사상을 그들의 ‘합’으로 본다.

### ① 통일사상의 존재론

존재의 개념을 ‘존재하는 만물과 만물을 존재하게 한 신’의 두가지로 본다. 전자는 존재자라고 하고 후자를 원존재라고 부른다. 이 존재론은 이원론적이며 범신론적인 무신론이다.

### ② 통일사상 인간론

인간론은 본연의 인간에 대한 존재론이다. 그들은 현대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인간론을 비판하면서 그 자리에 문선명의 본성론을 보완하고 있다.

### ③ 통일사상의 인식론

그들은 경험과 이성의 통일, 실재와 관념의 통일 인식론을 말한다. 이것은 정분합작용의 인식이다. 이와는 달리 기독교의 인식론은 신지식의 인식론이다.

### ④ 통일사상의 논리학

그들의 논리학은 통일논리학으로 정분합의 논리학이다. 창조, 타락, 복귀의 원리가 그것이다.

### ⑤ 통일사상의 윤리학

그들의 윤리학은 가정윤리이다. 반면 기독교의 윤리학은 아가페의 윤리이다.

### ⑥ 통일사상의 역사론

통일사상의 역사론은 복귀사관이다. 반면 기독교회의 역사철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46) 탁명환, op.cit., pp.140~141.

47) 죄의 근원이 하체이므로 하체를 때림으로 죄를 탕감한다는 의미에서 치르는 행사로 신랑과 신부가 방망이로 서로의 엉덩이를 3대씩 때리는 의식이다.

새 창조의 역사이다.

#### ⑦ 통일사상의 교육론

통일사상의 교육론은 민주주의 사회의 교육이념과 공산주의 사회의 교육이념을 통일한 교육이념으로 문선명을 통한 교육을 말한다.

#### ⑧ 통일사상의 예술론

남성과 여성의 만남에서 생기는 ‘쾌락’을 최고의 예술로 생각한다. 기독교회의 예술은 하나님의 창조를 통한 아름다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한 선택자의 미요, 영광의 재림주로 인한 신천신지의 예술이다<sup>48)</sup>.

### 4. 통일교의 현황

통일교의 현황에 대한 것은 자료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통일교에서 발표하는 것과 외부에서 발표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다. 특히 교세에 대한 부분은 더욱 그렇다. 그것은 교세는 외부인이 실재로 확인이 힘든 반면 기업활동은 공개된 활동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서는 통일교의 종교현황과 그들의 자금줄인 기업활동을 포함한 경제활동에 관한 현황을 기술해 보도록 하겠다.

#### 1) 통일교의 교세

통일교의 활동은 종교와 사회활동, 기업활동 등 크게 3가지 분야로 구분되는데 종교가 활동의 중심이고 사회활동이나 기업활동은 종교를 밀고 나가기 위한 추진력이 된다.

전에 통일교에 있다가 나와서 통일교의 실상에 대해 전파하고 있는 이대복씨에 따르면 통일교에서 발표하고 있는 신도나 교회수는 허위부분이 많다고 한다. 87년을 기준으로 볼 때 통일교에서 주장하는 신도수는 43명만명이고, 교역자는 550명이며 교회는 510개라고 하는데 반해 이대복씨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신도수는 1만 9천여명뿐이 되지 않고, 교역자는 510명, 교회는 510개라는 것이다<sup>49)</sup>. 동년 대비 외국에 있는 통일교회수는 100여개국에 700여 교회가 있고, 신도는 35,000명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되나 통일교에서는 400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150여 교회에 8,000여명의 신도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300여 교회에 15,000여명의 신도수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도합해 보면 국내외에 있는 통일교의 총수는 1,200여개교회에 55,000명의 신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이러던 것이 96년도에는 전세계적으로 100~200만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sup>50)</sup>. 또 다른 자료에 따르면 2000년 현재 국내의 신도 수는 약 22만명, 700여개의 교회를 전국에 두고 있으며 승공연합, 국민연합등 산하조직에 80여만명의 회원을 갖고 있다고 한다<sup>51)</sup>. 이외에 87년 현재 국내외 교육기관 13개, 사회단체 15개소와 7개지부, 언론기관 및 잡지사 94개, 문화단체 8개, 사업체 수는 98개에 이른다고 한다<sup>52)</sup>.

#### 2) 통일교의 기업체와 재산

48) 박영관, op.cit., pp.83~93.

49) 이대복, op.cit., pp.142~143.

50) [http://www.chinamm.org/heresy\\_6.htm](http://www.chinamm.org/heresy_6.htm)

51) <http://www.khan.co.kr/newsmaker/society/n361c09.htm>

52) 이대복, op.cit., pp.144~148.

통일교의 국내 기업이 번창한 원인 중에 하나는 미국 통일교의 재정 지원 때문이다. 통일교의 문선명은 기업가이고 추종자들은 모두 통일교 기업체의 고용인력이다. 그들은 기업활동으로 얻은 자금을 그들의 포교활동과 선전비로 대부분 소비하고 있다.

통일교가 다른 종교와 확연하게 구분되는 점은 종교활동 못지 않은 왕성한 기업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통일교의 모기업인 통일그룹의 모태가 된 것은 59년 인천에 세운 ‘예화 산탄공기총 제작소’라는 소규모 가내공장이었다. 이 회사는 통일교가 교세를 확장함에 따라 교단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세워진 공장이다. 정부의 수렵 금지령에 따라 64년부터는 공작기계 제조에 뛰어들었고 때마침 불어닥친 산업화 붐을 타고 사세는 급성장했다. 68년에는 통일 산업으로 이름을 바꿨으며 예비군 훈련등에서 사용하는 모의 총기를 생산했던 이 업체는 72년 방위산업체로 지정받았다. 이후 통일교는 항공기계, 해양, 자동차산업, 식음료 산업 등으로 기업활동 영역을 확산시켜 나갔다. 통일교 계열 기업으로는 일화, 한국티타늄, 일신석재, 일성종합건설 등이 있다. 통일교가 펼치고 있는 기업활동 가운데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대북사업이다. 박보희가 회장으로 있는 금강산국제그룹은 통일교의 대북 사업 전면에 나서고 있는 회사다. 91년 11월 방북한 문선명은 김일성과 만나 대북사업의 지원을 약속 받기도 했다. 현재 북한에 호텔을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 2월 4일에는 남포에 자동차 조립공장인 평화자동차 공장을 열었다. 통일교도 금강산 관광개발을 추진했으나 현대의 자본에 밀려 지금은 주춤한 상태이나 통일교측 관계자는 “현대가 금강산 관광을 독점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틀린 얘기 “라면서” 금강산 관광은 김일성 주석의 유훈 사업으로, 이 문제는 문 총재가 방북 했을 당시 약속 받은 것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 통일교가 활발한 사회 경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은 문선명을 중심으로 한 단결력, 간부와 신도들의 헌신과 조직력이 어우러져 이뤄낸 것으로 평가받는다<sup>53)</sup>.

통일교는 부동산왕국, 기업왕국을 꿈꾸고 있다. 더구나 세계 45개 국가에 120여 곳의 성지를 택정해 놓고 있다. 문선명이 성역을 뿌리고 기도한 자리는 표시를 해 놓았다가 꼭 매입하는데 주로 산세가 좋은 곳을 택한다. 한국내에만 성지가 300여곳이 넘는다. 통일교에서 성지는 하나님의 땅이요, 기도하는 장소로 꼭 매입해야 한다는 불문율이 있다. 통일교에서 최초로 문선명이 1966년에 경기도 구리에 산탄공기총 공장을 건설한 것이 돈벌이의 시초이다. 공기총을 생산하여 전국 통일교에 판매를 시켰다. 여기서 경제적 기반을 다진 뒤 각종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해외에서도 통일교가 전파되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꽃팔이 양초팔이, 구걸모금, 인삼차판매, 석공예품 판매가 이루어져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고, 지금도 각종 기업체와 부동산을 통해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sup>54)</sup>.

## 5. 몰락하고 있는 통일교

마지막으로 통일교에서 목사를 하다가 탈퇴를 했다고 하는 한 사람의 증언을 통해 통일교의 향후 전망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무엇보다도 그곳에서 생활한 사람으로써 느끼고 경험한 것을 통해 현실적으로 통일교가 부딪치고 있는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였다고 판단되는 바 여기에 인용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르면 문선명 집단은 몰락징조(沒落徵兆)를 보이고 있다. 문선명 집단은 무너지기 시작하였으며, 그들의 종말과 몰락을 향해 치달고 있다. 문선명 집단은 그 동안 거대한 아

53) <http://www.khan.co.kr/newsmaker/society/n361c09.htm>

54) 탁명환, op.cit., p.160.

성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허수아비이며, 내부는 썩어있고, 이제 종말의 막다른 골목에 있다는 것이다. 통일교가 몰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통일교의 향후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 1) 문선명 집단의 통일그룹의 부도(不渡)

문선명 집단의 몰락은 문선명 집단의 통일 그룹의 부도에서 기인하고 있다. 일본의 문선명 집단의 추종자들의 자금줄이 끊어지기 시작하고, 금융권으로부터 엄청난 자금을 융자받아서 문선명이 마음대로 쓰고, 해외로 도피시키고, 예견치 못한 I.M.F를 만나고, 쓰러지기 시작한 것이다.

문선명은 그 동안 하나의 재단으로 통일그룹과 통일교회(지금은 가정교회)를 운영하다가 부도위기에서 재단을 분리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통일그룹의 부도는 통일그룹의 핵심 기업인 주식회사 통일 산업, 일화, 한국티타늄, 일신석재 그리고 일성종합건설 등은 워크아웃되었으며, 금싸라기의 여의도 땅 역시 경매에 들어간 실정이다. 이렇게 문선명 집단의 통일그룹은 지금 몰락 중에 있으며, 그 밖의 기업들 역시 파산 직전에 있다. 통일그룹의 부도를 막기 위하여 통일교 식구들은 전력을 다하여 현금을 수차례 하였으나, 자금은 역부족이었고, 일본에서도 막대한 현금이 들어 왔으나, 콩나물 시루에 물주기가 되었다.

이제 통일그룹은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이 경영하고 있고, 문선명은 빈 껍데기만 갖고 있는 것이다. 문선명 집단의 통일그룹과 그의 아성은 머지않아 무너지게 되어 있고, 차체에 금융감독원은 통일그룹의 재산평가를 하고, 해외에 유출된 자금을 조사해야 하며, 통일그룹의 부채를 회수해야 할 것이다.

### 2) 문선명 집단의 통일교회(가정교회)의 파멸(破滅)

문선명 집단의 통일교회 혹은 가정교회들은 문닫기 일보 직전에 있다. 모든 통일교회의 목회자들은 이미 문선명은 가짜 재림주이며, 거짓 참부모이며, 적그리스도이며, 종교를 빙자하여 기업활동을 하는 집단인 것을 알고 있으며, 지금 죽지 못해서 호구지책으로 남아 있는 것뿐이며, 기회만 있으면, 언제든지 탈퇴를 하려고 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의 문선명 추종자는 360교회의 30만명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2만 9천명 정도이며, 미국 역시 1만명 식구라고 하지만, 2천명도 안되며, 일본 역시 30만명이라고 하지만 3만명도 채 못된다. 문선명 집단의 지도부만 자기 체면에 걸려서 문선명 추종자가 많다고 하지만, 아래쪽은 이미 끝장이 나 있는 상태이다. 매년 수십명의 목회자들이 떠나고 있으며, 이번에도 40명의 목회자가 떠났고, 그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문선명 집단의 협회는 모르며, 전부 1회용으로 이용하고 버린다. 이제 문선명 집단의 통일교회는 문을 닫게 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 3) 문선명 집단의 권력투쟁(權力鬭爭)

문선명 집단의 후계구도문제로 내부는 심한 권력투쟁의 소용돌이 속에 처해 있다. 소위 실세인 곽정환과 현 협회장인 황선조파, 한국문화재단총재인 박보희와 문승균, 문승룡파 등의 세력싸움이다. 금년 4월 30일에 문선명은 문현진씨를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회의 부회장으로 옹립하고, 세계청년연합회의 회장으로 취임케 했다. 문현진은 곽정환의 사위이다. 최근에 문선명은 자신의 유고(有故)시에는 곽정환씨로 하여금 모든 통일교회의 업무를 결재하



도록 하였다. 곽정환씨는 막강한 권력을 쥐게되었고, 현재 그는 선문대학의 이사장, 세계일보 사장,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회의 부회장이다. 현재 겉으로는 문현진과 곽정환 체제로 후계구도가 굳어지고 있으며, 여기에 강력한 도전자는 현 협회장이다. 그는 자기 사람들을 요소 요소에 두기에 분주하고 있고, 문선명과 검사돈인 박보희 역시 실세회복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반면에 문선명의 형제들인 문승균과 문승룡의 세력 역시 만만치 않다. 그러나 그들은 나이가 많고, 별로 힘이 없다.

이와 같이 문선명 집단은 문선명의 사후에는 산산조각이 나며, 문선명 집단은 스스로 파멸되고 말 것이다. 이것은 모든 기독교회의 이단종파들의 전례이기도하다. 우리 나라에서는 박태선파가 그 좋은 본보기이다. 박태선이 죽은 이후로 그 집단은 유명무실 되었다. 그 동안은 문선명이 그의 장남 문흥진을 후계자로 지명하였으나, 문흥진은 불행하게도 소위 장자권 회복을 하지 못하고 마약과 방탕한 생활로 아내 홍난숙과 이혼하고, 최근에 최윤기씨의 딸과 합동결혼식 하여 아기까지 낳았다. 이렇게 문선명 집단의 장자권 회복은 무너졌고, 5남인 문현진이 후계자가 된 것이다. 그는 우리 나라 말을 잘 못한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통일교회를 이끌어 가겠는가?

#### 4) 문선명 집단의 합동결혼식의 파행(跛行)

문선명 집단의 몰락은 소위 합동결혼식의 파행에 있다. 통일교회의 목회자들이 가장 힘들고 증오하고 싫증나는 것이 합동 결혼식이다. 배당된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동분서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하나의 편법으로 동네 노인들을 동원하고, 그 노인들에게 하얀 목도리를 주어서 위장 신랑과 신부처럼 하게 한다. 단적으로 이것은 문선명 집단의 몰락의 징조이며, 사탄과 마귀의 소행이며, 인신매매이며, 착취인 것입니다. 농어촌의 노총각 노처녀들을 현혹시켜서, 결혼을 시켜준다고 하여, 막대한 지참금, 혼수 돈을 내게 한다. 그들의 연령은 35세, 40세, 45세, 50-60세 등 다양하다.

특별히 노총각들을 위해서는 동남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처녀들과 유부녀들을 수입해 온다. 그들의 왕복 비행기 값, 체류비 등등의 명목으로 천만원 이상 협회에 바쳐야 하는 형편이며, 그들은 합동결혼식에 참여시키지만, 합동결혼식이 끝나자마자 무려 30% 이상은 파혼을 한다. 언어와 생활습관의 문화적 차이 때문이요, 근본적인 것은 동남아시아 여인들은 우리 나라에서 돈을 벌기 위해 왔기 때문에 잠시 합동결혼식에 형식적으로 참여하고, 각기 막노동을 하기 때문이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파출부, 매춘, 공장 등에서 막노동을 한다. 이것은 사회적 외교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그리고 최근 합동결혼식을 한 가정들은 문선명 집단을 위하여 갠 명목으로 약 1억원 정도 통일교회에 헌금을 해야하는 처지에 있다. 이 헌금 때문에 어떤 가정은 자살까지 한다.

#### 5) 문선명 집단의 정치적 야심(野心)

문선명 집단은 2003년을 목표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회 소위 통일당 혹은 가정당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통반격파 운동을 하고 있다. 이것은 다음 대통령 선거에 문선명의 부인 한학자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기 위한 전초적인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여야 국회의원들을 후원하였고, 그들은 언제든지 자기당으로 끌어들인다는 속셈이며, 불복종 시에는 그 동안의 관계를 폭로하여 정치 생명을 끊게 한다는 것이다.

문선명 집단은 몰락은 통일그룹의 부도, 통일교회의 파멸, 권력투쟁, 합동결혼식의 파행,

그리고 통일당 혹은 가정당에 기인한 것에서 예상해 볼 수 있다.

문선명 집단은 최근 5년 사이에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 이것은 문선명의 적 그리스도적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며, 기독교회와 정부당국, 교계와 정치계, 경제계와 교육계 등이 그 동안 너무나 무관심, 무투자, 무책임을 하여 문선명 집단을 이지경으로 만든 것이다. 이제 그들의 몰락과 종말이 가까웠다<sup>55)</sup>.

## 결 론

통일교라는 거대한 산을 등산하였다. 그 동안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통일교라는 산을 한번 깊숙이 등정함으로써 그 산의 대강의 윤곽에 대해서 알게되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알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왜 이단이며 경계해야 하는 대상인지는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통일교가 이단이라는 것은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들의 실상에 대해선 자세히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회에서 학생들에게 ‘통일교나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이단종파에 대해서 아는가?’ 라고 질문을 해 보았는데 대다수가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는 교사들도 그들이 이단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으나 교리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 그들이 이단이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는 교사도 있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며, 통일교와 같은 이단집단에 청년들이 많이 있다는 이유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한다.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말도 안되는 논리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찾다가 선문대학 신학과 길영환교수의 홈페이지에 우연히 들어가게 되었다. 그 곳에 방문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을 남겨 놓았다. 이단이라고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이들도 있었다. 심한 욕을 퍼붓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 교수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성심 성의껏 답을 올려놓았고, 비방의 글들을 삭제하지도 않고 있었다. 비방의 글이 너무도 많이 올라오는지 그것에 지치는 듯한 답변도 있었다. 이렇게 버젓이 비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동정을 받고 있다는 것에 개탄을 금치 못했다. 마치 자기들이 진리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다는 인상까지 받게 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찌해야 하나?’ 를 생각해 본다. 그들에게 상스러운 욕으로 우리의 감정을 나타내기보다는 먼저 알아야 한다. 그리고 전해야 하고 말도 되지 않는 그들의 주장에 대해 반박해야 한다. 그들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이들에게 그들의 실상을 가르쳐야 하고,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말씀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것이 목회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비진리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정말 거대한 비진리중에 하나가 통일교이다. 다른 이단종파와 마찬가지로 수명이 다해 간다고 하지만 그 동안 그들로 인해 죽어간 영혼들이 너무도 많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좌시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이제 그것을 나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리고 그에 대한 대처를 위해 열심을 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흔들리지 않는 판단력을 위해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면서 대처하기 위한 실력을 키워나가야 하겠다.

55) <http://www.kiccc.org/book/magazin/2000/summer/special-2.htm>

## 참고문헌

### 국내서적

박영관. *이단종파비판 1*.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6.

심창섭·김도빈·오영호·박영관 공저. *기독교의 이단들*.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2000.

이대복. *통일교 원리비판과 문선명 그 실상 허상*. 서울: 국제통일교 대책문제연구소, 1987.

탁명환. *기독교이단연구*. 서울: 한국종교문제연구소, 1996.

### 번역서적

로날드 엔로드 외. 오희천 옮김. *신흥종교와 이단들*.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4.

조쉬 맥도웰·돈 스튜어트 공저. 이호열 역. *이단종파*. 서울: 기독지혜사, 1989.

### 인터넷 검색자료

<http://www.khan.co.kr/newsmaker/society/n361c09.htm>

[http://www.chinamm.org/heresy\\_6.htm](http://www.chinamm.org/heresy_6.htm)

<http://www.kiccc.org/book/magazin/2000/summer/special-2.htm>

